

세계 한인들 “올림픽 유치 전북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곳곳 재외동포들, 자발적 응원 캠페인 전개… 전북 유치 당위성 알리는데 큰 역할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향한 염원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들이 '전북 올림픽 유치 응원 릴레이'에 적극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혁신적인 올림픽 모델'과 'K-문화 세계화'라는 비전을 앞세워 올림픽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세계 곳곳의 한인 사회도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한인회와 호남향우회, 도민회 등 재외동포 단체들은 SNS를 통해 'K-문화 수도 전북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의 강점과 유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 한인 단체들은 전북이 가진 잠재력을 강조하며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캠페인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 행사와 문화제에서 전북 올림픽 유치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세계 한인들의 응원 릴레이.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응원이 전북 올림픽 유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K-콘텐츠와 친환경·스마트 올림픽이라는 전북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국제적 공감을 얻으며, 유치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북에서 개최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스포츠·문화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전북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전북 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어 큰 감동을 받고 있다”며, “도민과 해외 동포들의 염원을 모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선수단, 동계체전 출전

대회는 오늘 개막… 26년 연속 종합 4위 달성 관심사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이 '26년 연속 종합 4위'라는 대기록 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전국동계체전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선수와 임원 등 약 350명이 전북 체육의 명예를 걸고 출전,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동계종목은 아이스하키와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루지 등 8개 종목이며 앞서 빙상은 사전경기로 치러졌다.

전북 선수단은 전력 분석 결과 50~55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으며, 전통 강세 종목인 바이애슬론에서 다수의 메달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스키 등 다른 종목에서의 선전도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 현재까지 펼쳐진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확보한 상태다.

도 체육회는 대회 기간 선수트레이너(AT)도 파견,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및 경기력 향상을 높일 예정이다.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은 “자랑스러운 우리 전북 선수단이 선전할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 도민·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전

엠블럼 등… 내달 11일까지

고창군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에 활용할 상징물을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엠블럼(대화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슬로건(구호) 등 6개 부문이다.

공모주제는 체전으로 하나되는 도민스포츠 축제 분위기 등을 특색있게 표현, 전북자치도와 고창군의 기상·발전상·미래상을 상징적으로 표현 등 다양한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는다.

신청은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고, 슬로건은 e-mail 접수도 가능하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도

민체전추진단TF팀(063-560-8968~8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현대, 금호타이어와 공식 파트너십 연장키로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가 금호타이어와의 동행을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금호타이어와 공식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은 전북 이도현 단장을 비롯해 금호타이어 G.마케팅 담당 윤석민 상무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시스

‘하계올림픽 유치 염원’

역사 판타지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 3회 연속 매진
도·소리문화전당 공동 기획… 문화올림픽 가능성 선포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며 기획된 역사 판타지 공연 ‘태권유랑단 녹두’가 3회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공동 기획한 작품으로, 태권도와 동학, 전통음악을 결합해 문화올림픽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태권유랑단 녹두’는 태권도의 정신(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과 동학이 강조하는 인간 존중 사상을 표현한 창작극으로, 올림픽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 5회 공연 중 현재까지 3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남은 2회 역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가족단위 관객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객들이 몰리면서 공연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공연장을 찾은 한 관객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며 추가 공연 요청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엔딩 5막에서는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된 촛불을 들고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감동을 더했다. 또한, 대형 올림픽 유치 염원 휘장이 무대에 펼쳐지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세계 평화와 하나 되는 가치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은 동학 정신과 태권도의 성자인 전북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꽃피는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과 끝까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25 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대회’에서 전북축구협회가 한마음한뜻으로 올림픽 전북 유치를 염원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제공〉

금석배 축구대회서도 “올림픽 유치 기원”

전북축구협회, 올림픽 전북 유치 홍보활동 펼쳐

‘2036 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전국대회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2025 금석배 전국중학생 축구대회’에서 전북축구협회가 한마음한뜻으로 올림픽 전북 유치를 염원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금석배는 축구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역사가 깊은 대회이며 올해에는 전국에서 55개팀이 출전,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처럼 전국 축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북축구협회는 올림픽 전북 유치 당위성 등을 알리고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활용, 올림픽을 홍보했다.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은 “금석배 참가를 위해 전북(군산)을 찾아준 전국의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2036 올림픽이 전북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